MZ세대 '창업 목적' 국가자격증 취득 열기 뜨겁다

2030 접수자 광주 1363명·전남 1127명…전년보다 58% 급증
응시자격 제한 없는 미용·조리 부문 인기…미용 3년 연속 최다

코로나19로 인한 창업열풍 속에 지난해 광주·전남 2030 세대의 국가기술자격 접수자가 전년보다 58% 급증했다.

전통적인 창업 업종인 미용사 자격시험이 광주·전남 두 지역에서 모두 인기가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에는 광주지역 제과기능사·제빵기능사 응시자 수가 나란히 상위권에 들었다.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 목적'을 지닌 20~30대 국가기술자격 접수자는 광주 1363명·전남 1127명 등 2490명으로, 전년(1572명)보다 58.4%(918명) 급증했다.

공단은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한 2030세대(전국 131만7504명)를 대상으로 응시 목적을 전수 조사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난과 창업 열풍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광주와 전남 두 지역 모두 국가기술자격 접수자가 각 1000건을 넘겼다.

광주 접수자는 728명(2019년)→769명(2020년)→1363명(2021년)으로 늘었고 전남지역도 692명(2019년)→803명(2020년)→1127명)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대졸 수준의 기사 등급 접수자가 전년 15명에서 30명으로, 2배 증가했다. 기사 등급에서는 전기, 컬러리스트, 건축 분야의 자격이 인기가 많다.

자동차 정비, 식물보호 등이 대표적인 전문대졸 수준의 산업기사 등급 접수자도 9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는 기능사 접수자는 741명에서 1305명으로, 76.1%(564명) 급증했다.

전남지역도 기능사 접수자가 764명에서 1073명으로, 40.4%(309명) 증가했다.

산업기사 접수자는 20명에서 30명으로 늘고, 기사 부문은 18명에서 16명으로 소폭 줄었다.

'창업'을 목적으로 자격시험을 본다는 2030 세대 가운데 3년 연속 가장 인기가 높은 종목은 미용사(피부/손톱·발톱)였다.

지난해 광주에서 '창업 목적'으로 피부 미용사 기능사 시험을 본 2030 응시자는 312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네일(손톱·발톱) 부문은 218명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지역 피부 미용사 2030 응시자는 151명(2019년)→166명(2020년)→312명(지난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전남 2030 네일 미용사 응시자는 257명으로, 3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피부 미용사 응시자도 전남에서 112명(2019년)→138명(2020년)→166명(지난해) 늘고 있다.

■광주·전남 2030 창업목적 응시 순위

1위 피부미용사 478명

2위 네일미용사 475명

3위 …… 제과기능사 332명

4위 …… 제빵기능사 281명

5위 …… 메이크업미용사 170명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기준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에서는 '디저트 카페' '베이커리' 창업이 부쩍 늘면서 제과(183명)·제빵(152명) 기능사 응시자가 나란히 3~4위를 차지했다. 창업을 위해 제과기능사 시험을 본 2030은 전년 65명에서 181.5%(118명) 급증했다. 5위에는 메이크업 미용사(82명)가 올랐다.

전남은 1위 네일(257명)과 2위 피부(166명) 미용사에 이어 3위 제과기능사(149명), 4위 제빵기능사(129명), 5위 메이크업 미용사(88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공단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한 2030 세대 수험생 총 131만7504명을 대상으로 응시 목적을 전수 조사해보니 '창업' 목적이라고 답한 수험생은 3.3%에 해당하는 4만3307명으로 집계됐다. 창업 목적 2030 국가기술자격 수험생은 전년(3만2882명)보다 31.7% 증가했다.

창업을 목적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60.5%는 학원(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준비한다고 응답했으며, 32.3%는 독학했다고 말했다.

자격시험 준비기간의 경우 수험생의 74%가 3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3~6개월이 19.4%, 6~12개월이 3.9%로 그 뒤를 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27~29일 DJ센터서 열린다

'2022 광주 창업&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소상공인희망협동조합이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70여개 업체, 140부스 규모로 진행될 예정으로, 최신 창업트랜드에 맞춰 소자본창업, 청년창업, 무인창업, 배달창업, 카페창업 등 다양하고 새로운 업체들이 참여한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무인창업이나 1인 창업으로 진행가능한 밀키트, 스터디카페 및 와인샵 등 업체들을 다수 선보일 예정으로, 외식업 이외 창업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펫 사업과, 실버 사업, 포토 사업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참가한다.

이번 창업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광주 창업&프랜차이즈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한 뒤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당일 현장에서도 등록카드 작성하면 무료 입장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순천시와 미래 인재 양성 협약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와 순천시가 10일 오전 '미래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섬본부 제공〉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순천 미래인재를 대상으로 최신 물관리 기술 체험 활성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영·섬유역본부와 순천시는 이날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그린-네트워크 플랫폼 미래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위성기반 유역통합물관리·디지털트윈 등 최신 물관리 기술 ▲수력·수열·수상태양광·조력 등 그린에너지 사업 부문 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현식 본부장은 "순천시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통해 청년실업문제 해소 및 지역 상생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상의, 경영학회와 지역경제 발전 지원 협약

광주상의 최종만(왼쪽 네번째) 상근부회장과 한국경영학회 한상만(왼쪽 세번째) 회장 등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상의 제공〉

광주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학회는 10일 광주상의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중소기업 CEO의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발굴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상생 협력방안의 추진을 통해 기업과 지역경제 전반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 경영과 관련된 학문·실무적 연구와 정보·지식 등 교류를 비롯해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의 개최를 통해 최신 정보와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신기업가정신 함양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최근 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당면한 위기의 극복은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강화된 역할을 요구받는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며 "지역 기업들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과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에 보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민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해양에너지, 최대 규모 IT 플랫폼 구축

모든 업무 비대면 서비스 가능

광주시 전역과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최대 규모 정보기술(IT)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에너지의 IT플랫폼 구축은 앞으로 2년 6개월 가량 진행된다.

전산 업그레이드 전략수립(ISP)을 통한 업무자동화, 비대면 서비스 확대, 원스톱 서비스 강화, 스마트한 안전관리 실현 등을 목표로 한다.

해양에너지는 지난해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절차 개선을 추진했다.

공급문의, 계약, 안전점검, 설계, 공사, 준공, 공급, 시설유지보수 등 가스공급을 위한 모든 업무의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지난 2020년에는 IT플랫폼 구축을 첫 단계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인 SAP S/4 HANA를 도시가스 업계 최초로 구축하기도 했다.

해양에너지는 이 같은 개선 작업을 통해 요금업무 소요 시간이 10분의 1 이상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회계 결산 자동화, 전표 처리, 실시간 결재 처리 등 모든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지난해는 11억원, 올해는 14억원에 달하는 정량적인 효과가 실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에너지 측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기간은 4~5년 이내이다.

김형순 대표는 "IT 플랫폼 구축의 성과로 '직원의 행복이 회사 성과의 밑거름이라는 철학'을 실현하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벨 문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80억, 호텔/ 무인텔 매매 교환

• 전남 화순군 도곡온천 내
• 대지 2980평, 건물 1270평, 계획관리
• 건물 3동, 객실 52개, 관광호텔 허가 有
• 요양(병)원, 콘도, 리조트, 연수원 등 업종 변경가
• 법인체 양도양수가, 수도권 토지와 교환 가

주인 직거래. 010-3605-5000

21억, 신안동 대지, 매매

• 광주 북구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10층, 72호실)
• 타용도 변경가, 회사 사정상 매매
• 현, 주차장 영업 中

문 의. 010-3605-5000